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사순절의 묵상

###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 - 11)
-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 11:15 - 26)
-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 11:27 - 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첫번째는 막14:3 - 9 참조)
- ⑥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 - 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잠수심(목요일 오후, 막14:12, 31)
-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 14:32 - 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 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14:53 - 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 - 71)
-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25)
-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 23:6 - 12)
-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 23:13 - 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 15:16 - 41)
-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 - 47)
-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 ⑳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 - 8)

『신약개론』 (이종윤목사 지음) 중에서

### 종려주일

##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

### 특별새벽기도회 · 금식 등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 특별금요기도회 등 각종 기도 등 모임을 갖게 된다.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치면 된다.

### 특별금요기도회

평소 심야기도회로 모이던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고난주간 특별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 특별새벽기도회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이종윤 목사가 인도하며 새벽 5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갖는다.

### 다락방모임은 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별모임과 다락방 모임은 이날 저녁 9시에 열리는 특별 연합기도회로 대체된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삼도록 한다.

### 부활절 예배와 행사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리며 서울시 연합예배는 장중체육관에서 드린다.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준비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된다.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이영기 장로, 지휘 이광석 선생, 오르간 조은주 집사, 피아노 정은영, 윤은숙 선생)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 4월 2일(금)은 금식일

우리 교회는 사순절기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28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제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고난주간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사랑의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식헌금은 다음 주일(4월 4일) I · II · III부

##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오늘 개강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감 천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의 등록비는 입학예배를 드린다. 학금을 포함하여 일만원이다. 문의는 사무국.

이번 학기 강좌 중 야 고보서반, 말라기서반, 고린도전서반 및 음악 교실은 이번 주에 첫 강의를 시작하며 느헤미야반(야담반)은 8일(목)에 첫 강의를 하게 된다. 등록비는 과목당 오

###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 (3~6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8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 안진선 선생	4월 1일

고난주간설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9장 5-11절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십자가에 못박하신 분은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증언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라고 하셨습니다(마3:17).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요(요8:58), 아버지와 하나이시며(요10:30, 14:9), 심판주 되심(막14:62)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요15:26).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눅1:31, 32)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확증된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였고, 마가는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막1:11). 누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눅1:32, 35)이라 하였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며(요1:1-2, 20:30),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마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요11:27),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한 편 강도는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위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의인되심을 인정하였고,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님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

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으나 자기를 위해 죽은 자살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갈2:20).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으니 충만한 기쁨으로 그 사랑을 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중운 목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사람은 우리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못박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십니다.

3.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겸손과 감사,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삽니다. 가치관이 변하였으니 새 사람이 되어 목표와 삶의 방법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거절과 치욕, 고통과 죽음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는 자기를 내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좇아갑니다.

순례자 컬럼

고난의 종교

고난없는 종교는 문화적 행사나 심리적 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 행복 추구나 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려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

하여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도 한다.

인본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주장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도구요, 인간에게 기쁨이나 선물하는 장식을 정도로밖에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부활절을 앞두고

## “먼저 가신 당신을 그리며”

이옥현(권사, 12교구)

부활절을 앞두고 먼저 가신 당신을 회상합니다.

인생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였으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다 지난 1월8일에 9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

너무나 갑자기 그 일이 다가와, 자손들과 나는 당황 속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니 이제 아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남달리 깔끔한 차림으로 예배가 마치면 모든 성도들께 인사도 잘하시곤 했었지요. 올해 첫 예배인 송구영신예배 후에는 목사님께 악수를 나누며 “건강하시어 좋은 말씀 많이 주십시오” 하시며 부탁 말씀도 드렸었지요.

항상 겸손과 사랑을 강조하셨고 인내와 절제로 일관된 삶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

니다.

60세가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이후 30년이 넘도록 늘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더구나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셨느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당신의 소원으로 인해 텅빈 자리의 허무함은 이제 뒤로 하고 슬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당신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날에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이 아침에 웃기를 여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부활의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 찬란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태상(집사, 할렐루야찬양대 부대장)

다음 주일 찬양예배에 드릴 부활절 찬양을 위해 할렐루야찬양대는 2월 첫 주부터 매주 일과 토요일에 특별연습을 했다. 찬양은 헨델의 곡 “위트렉트 데 데움”.

테 데움이란 라틴어 “Te deum Laudamus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의 약칭이다. 테 데움은 6세기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16세기부터 신·구교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침 기도시간, 취입식, 대관식, 전쟁에서의 승리 등 국가적 축제를 비롯한 축일의 성가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찬양이다.

테 데움의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면 31개의 짧은 시구(詩句)들로 이루어진 장대한 찬미의 노래로서 교회 찬송 음악의 한 형식이다. 1번에서 10번까지는 하나님 찬양, 11번에서 13번까지는 삼위일체 찬양, 14번에서 23번까지는 예수님 찬양, 24번에서 31번까지는 시편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에 따라 시구의 구분이 다소 다르기도 하다.

헨델은 다섯개의 테 데움을 작곡했으며 그 중 위트렉트 데 데움은 최초의 것이다. 이곳은 영국 앤 여왕의 탄생과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트렉트 평화조약을 축하하기 위해 영국

여왕의 주문으로 작곡한 것이다. 화려한 선율에 의해 가사의 축제적인 내용이 더 빛나고 있으며 기악과 성악의 역할은 기악(반주)이 환희를, 성악이 장엄한 찬미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다.

곡의 빠른 진행과 조바뀜, 고음, 극단적인 템포의 변화, 자유로운 대위선율 등 어려운 이 곡을 우리 찬양대가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소화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반주와 독창, 다양한 중창 및 합창의 극적인 전개는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했다.

처음 이 곡의 연습을 시작할 때에는 도무지 진척될 것 같지 않았고 지휘자 선생님도 대원들도 좀 불안했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되어 정성을 쏟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왔다.

솔로몬의 성전봉헌식 때 찬양으로 인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했다. 신앙의 근거이며 핵심인 부활절에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 “효과적인 전도를 원하신다면 2층으로 오세요”

정현숙(집사, 10교구, 테이프실 봉사)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건져내는 일인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전도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고민은 그 사실에 누구나 동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데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일 대 일 전도, 가가호호 방문, 지하철역 입구나 거리에서 복음 전도지 나눠주기, 병원이나 교도소 방문,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집중 전도하는 것,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등 참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 전도하고 싶은 열정은 불같이 타오르나 도무지 용기가 없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말은 일단 교회로 오라는 것이다. 교회에 오시면 2층 테이프실에서 생명의 말씀을 잘 풀어 설교한 테이프들을 구할 수 있다. 개당 1천원인 이 테이프에 투자하여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그 열매는 엄청나리라 믿는다. 또 많은 신앙서적들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전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도하고 잘 연구하여 해석한 말씀으로 가득찬 설교 테이프를 전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전도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 넘치는 말씀 속에서 혼자만 풍족해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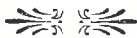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혁신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내일(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식목일인 4월 5일을 제외하고 6월 7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가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는 법을 강의한다.

한편 제 2교시는 국내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영성 목회와 예배 갱신', '예배와 찬양, 치유 목회의 방법과 실제', '영성 목회와 그 사례들',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 갱신', '교육 목회 모델', '개교회 전도 폭발전략', '한국 교회 설교 유형과 경향', '민족 75% 전도전략', '설교준비 이렇게 한다' 등 이번 학기 주제에 맞는 특강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학기에도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 고등부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는 오늘 11시 고등부실에서 고 3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학생과 재수생 그리고 그들을 일년 동안 기도로 후원할 후원자가 99년 첫 만남을 갖게 된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일년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예배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초청받은 새가족은 예배 전 환영석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초청된 새가족 \*

엄용대 김점선 김윤정 김사무엘 정경월 임재희 정영분 설국태  
김진탁 지성철 유요중 지현근 정미라 이영호 허효정 한정희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1999년 3월 29일 ~ 6월 7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Paradigm)”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 29.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영성 목회와 예배 갱신 정진경(신촌성결교회)
4. 12.		예배와 찬양 곽상수(연세대)
4. 19.		치유 목회의 방법과 실제 정정숙(총신대)
4. 26.		영성 목회와 그 사례들 김영한(한국교회정보센터)
5. 3.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 성장 성종현(장신대)
5. 10.		교육 목회 모델 은준관(연세대)
5. 17.		개교회 전도폭발 전략 나경일(주안장로교회)
5. 24.		한국 교회 설교 유형과 경향 박종순(총신교회)
5. 31.		민족 75% 전도전략 이필섭(비전2020운동본부)
6. 7.		설교 준비 이렇게 한다 김전도(광림교회)

### 동정

-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는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 국제학술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기 위해 18일(목) 출국하여 22일(월)귀국했다.
- \* 전광영 집사 · 김인숙 집사(3교구)는 3월 27일(토)부터 4월 27일(화)까지 미국 뉴욕 소호갤러리 초창 작품전시회를 열게 되어 지난 20일(토)출국했다.
- \* 유년부는 29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강현 성도 · 한정아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의미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2. 서울성경대학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새가족의 영적 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